



[지금 북녘은] 수해와 쌀 가격

지금 북녘은

입력 2024.10.13 18:00

수정 2024.10.13 18:25

염규현 통일디자인연구소



염규현 통일디자인연구소 연구원

지난 2일 정부가 올해 7월 말 수해로 매몰된 북한 자강도 한 마을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북한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의 압록강 인근 지역을 특급재해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매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들 지역 중에서도 자강도의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두 달 동안 수해 관련 공개 활동을 8차례나 진행하며 민심을 다독이고 있다.

그럼 이처럼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의 올 식량 수확량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위성사진을 통해 추정한 신의주와 의주 지역 침수 규모가 총 7637ha, 농경지 피해는 5525ha다. 논(벼)과 밭(옥수수) 침수에 따른 곡물 피해도 총 1만2577톤이다. 올해 식량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리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쌀 가격도 오를 것이다. 하지만 쌀 가격의 상승 원인이 수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혁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언론 기고를 통해 최근 수해와 별개로 서해 연안의 농업 지역 전반에서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측했다. 북한은 2022년 가뭄과 폭우로 급격한 곡물 생산량 감소를 겪은 후 2022년부터 식량 생산 체계를 쌀과 밀, 보리로 전환하는 사업과 농업 생산 기반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 선임연구원은 여기에 기후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식량 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생산량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양호한 곡물 생산량과 달리 곡물 가격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왜 그럴까.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쌀 가격은 당국의 양곡판매소 가격과 암시장 가격이 다르다. 양곡판매소는 국가의 계획(의무 수매)에 따라 확보된 쌀과 농장·공장·기업소·주민들로부터 확보(계약 수매)되는 쌀을 수매해 국정 변동 가격으로 판매한다.

오피니언

농정춘추

함정투성이 농업수입보장보험 말고 제대로 된 소득 보장 정책 추진해야



농민칼럼

그를 만나다



기자수첩

정말 '기후대응담'이 최선일까



지금 북녘은

수해와 쌀 가격



많이 본 기사

- 1 농협손보, 손사법인에 '일감 몰아주 관리비 등' 특혜?
- 2 농지 투기 막은 농지법 개정, 3년 만 도로아미타불?
- 3 친환경 공공급식이 '기후위기' 해법 수 있어
- 4 'LH 사태'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 5 벼값 보장·농가부채 해결·농업지원 확보...재확인된 농협의 숙제들

반면 시장(암시장)의 쌀 가격은 농장과 농장원, 공장과 기업소, 산간 지역 소토지, 무역 등에서 확보된 잉여 곡물과 주민 수요에 따라 결정된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시장의 쌀 가격(평양, 신의주, 혜산) 변동 추이를 보면 2020년 1분기 5000원대에 진입한 이후 2022년 2분기까지 다소 안정세를 보여주다가, 2022년 3분기부터 특정 구간(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을 제외하고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보다 쌀 생산량이 늘었던 2023년 가격이 오히려 더 높았다.

북한 당국은 2022년 곡물 생산성이 하락할 것을 대비해 양곡 수매와 양곡 정책에 저해되는 요소를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추수부터 탈곡에 이르기까지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 유입을 억제해 잉여 곡물을 양곡판매소로 흡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시장의 곡물 판매를 금지하고 양곡판매소를 통해서만 판매토록 해도, 주민들은 곡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소에 넘겨주기보다 높은 가격에 넘길 수 있는 암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쌀 가격은 높아지고 암시장이 양곡판매소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양곡판매소 재고량이 부족하면 암시장 쌀 가격이 높아지고 양곡판매소 양곡이 많으면 암시장 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양곡판매소와 암시장 간 가격 경쟁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북한의 높은 쌀 가격은 수해 때문이기보다는 당국의 곡물 시장 통제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 북한 당국이 양곡판매소의 곡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충분히 비축하거나, 현재의 통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

남이나 북이나 쌀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그 후과는 엄청나다. 부디 북한 주민들의 넉넉한 겨울나기를 바라본다.

#한국농정신문

#한국농정

#지금북녘은



염규현 통일디자인연구소 연구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Information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Articles

커버스토리

뉴스

기획

오피니언

사진·만평

농민마당

정보마당

한국농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5층

대표전화 : 02-2679-3693 | 팩스 : 02-2679-3691 법인명 : (주)한국농정신문 | 제호 : 한국농정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54492 | 등록일 : 2022-10-11 | 발행일 : 2022-10-11

발행·편집인 : 하원오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하원오

© 한국농정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FND